사자성어
대동소이(大同小異)
크게 보면 같으나, 작게 보면 다르다.

맛있는 공부

영어 인터뷰 없애고 내신반영 축소


국내 첫 사립 국제학교인 청심국제 중·고등학교.

2008학년도 청심국제고등학교 입시

청심국제중과 맥락을 같이 하는 청심국제고는 5년 이상의 특목고 유학 지도 경력의 유학 디렉터가 상주하고 있다. 외국인 교사만도 전체 교사의 30%가 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학 지도가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강점이다. 청심국제고는 외국어와 함께 국제정치·국제법·비교문화 등 사회문화 중심의 전문교과 82단위를 이수토록 하고 있다.

입시 요강 전후 대조내용
1) 전형별 모집인원

	2007			2008		
모집구분	국제전형(45)	영어우수(25)	특별전형	국제인재(55)	영어우수(40)	
		일어우수(10)			일어우수(10)	
		외국인(10)			외국인(5)	
				학교장추천자 (15)		
	일반전형 (55)		일반전형(80)	영어일반(30)		
				영어심화(50)		
	정원 외 입학(5)	특례입학(2)	정원 외 입학(7)	특례입학(3)		
		국가유공자(3)		국가유공자(4)		

※정원 100명→150명으로 확대, 학교장 추천 전형 신설.

2) 내신 산정 방법

	2007	2008		
		백분율	전교과	가중치
내신 산정 방법	교과성적 = 45 × A A = 1 – {(2학년 1학기 과목별 석차백분율의 합)/과목수 × 0.2 + (2학년 2학기 과목별 석차백분율의 합)/과목수 × 0.2 + (3학년 1학기 과목별 석차백분율의 합)/과목수 × 0.6}	~4%	150.0	100.0
		~8%	149.5	99.5
		~12%	149.0	99.0
		~16%	148.5	98.5
		~20%	148.0	98.0
		~24%	147.5	97.5
		~28%	147.0	97.0
		~32%	146.5	96.5
		~36%	146.0	96.0
		36%~	145.0	95.0

3)기타 변경

	2007	2008
영어 평가	듣기·에세이·인터뷰	인터뷰 폐지
일반전형 자격	3개 학기 중 한 학기 이상의 전과목 상위 10% 이내 등 내신 제한	내신 제한 폐지
일반전형 방법	내신 + 영어듣기 + 에세이 + 학업적성검사	* 에세이 기준 단계별 선발 1단계 : 에세이 제외한 총점으로 50명 우선 선발 2단계 : 에세이 포함한 총점으로 나머지 30명 최종 선발

2007학년도 합격자 정보

전형	평가항목 (총점)	평균
특별전형	TOEFL CBT (300)	262점
일반전형	내신 석차백분율 (%)	7.7%

2008학년도 청심국제고(경기도 가평) 입시안을 살펴보면 내신 비율과 모집 정원 등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눈에 띄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내신반영 비율 조정

국제고는 내신 기준이 외고나 자립형사립고(자사고)와 다르다. 자사고는 기본 점수 없이 내신을 100% 반영하고 외고는 등급별로 점수화하되 지난해까지 점수차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고인 청심고는 지난해 다른 학교에 비해 내신 반영 비율이 10배까지 높아 학생들이 지원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일반전형도 석차백분율 상위 10%까지만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최고와 최저 내신 점수차가 가중치·전과목 각각 5점이라 부담이 큰 폭으로 줄었다. 일반전형 지원 자격의 내신 제한도 폐지됐다.

모집정원의 확대

청심국제고는 해외 대학만을 목표로 하는 학교가 아니다. 청심만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국내 명문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지난해 100명에서 150명으로 정원을 늘렸다. 2008년 개교를 앞두고 있는 서울 국제고도 150명을 모집한다.

영어인터뷰 폐지

청심국제고는 생활과 수업을 대부분 영어로 하기 때문에 지원자들이 영어에 대한 압박감을 갖고 있는 편이다. 영어를 잘하면 좋지만 외국인 학교가 아니므로 영어가 반드시 합격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학업능력이 뛰어나다면 에세이나 회화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합격에는 무리가 없다. 인터뷰 폐지는 무엇보다 현 교육 체계상 국내에서 에세이와 인터뷰를 둘다 준비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학교의 판단에 따른 결과다. 대신 토플이나 텝스 등 공인 외국어 점수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

전형 분리 실시

지난해에는 국제전형과 일반전형 지원자가 같은 날 동시에 전형을 실시했으나 올해는 타 학교처럼 두 전형을 각각 다른 날에 실시한다. 이 밖에도 학교장 추천 전형이 신설됐으며 내신과 경력, 수상실적 등이 전형 요소에 포함된다. 청심국제고는 외고와 다른 유형의 특목고이기 때문에 경기권 외고의 공동출제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입시안을 살펴보았을 때 청심국제고의 구술면접 유형이 수도권 외고의 구술면접(학업적성검사)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신동엽 ㈜페르마에듀 대표 www.fermatedu.com

2007학년도 청심국제고 입시 결과

국내외 시사상식문제 많이 나와

유학을 1년 이상 경험한 경우는 44%에 이르며 1년 미만자를 포함하면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듣기**〉는 25문항이 출제됐으며 이 중 15문항은 IBT TOEFL 수준으로 출제됐다. 고난이도의 듣기 평가보다 학생들이 영어로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 듣기(Listening)가 평소 생활화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나머지 10문항은 영자신문이나 국내 일간지를 통해 국내외 시사 상식을 꾸준히 파악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뒀다. 뉴스와 관련된 지문을 통해 시험자가 국내외 동향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세계 정세를 파악하고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듣기 난이도는 하급 40%, 중급 30%, 상급 30%로 구성됐으며 총 시험 시간은 약 50분이었다.

〈**에세이**〉는 두 가지 형태로 출제됐으며 이 중 한가지를 선택해 작성토록 했다.

문학 작품을 인용해 지원자의 창작 능력을 테스트하는 문제와 손자병법을 인용해 북한 핵 문제와 한국의 태도에 대해 논의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청심국제고등학교 정철화 교감은 "손자병법을 인용한 문제의 경우, 정치경제학적 용어를 구사하며 국제정세를 정확히 분석한 뒤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는 지문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이 학생의 경우 평소 많은 글을 읽으면서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이나 다른 영자지를 주기적으로 읽은 게 눈에 확연히 띄었다"며 창의적인 논리전개를 위해선 풍부한 독서와 기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구술면접**〉은 10분 정도 소요됐으며 정치 경제 분야를 기초로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의 발언을 유추해 고난도의 질문과 일반적인 생활 영어 수준의 질문들로 구성됐다.

사교육 강좌 전액 무상지원키로

한국외대부속외고, 회화·댄스 등 모두 89개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국외대부속외고(교장 남봉철)는 25일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과 후 학교'(after-school)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학교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학교 학생들은 무료로 '방과후 학교' 수업을 듣게 됐다. 지금까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일부 어려운 학생의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해 왔으나, 이 학교처럼 수익자 부담이 원칙인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전체를 학교에서 부담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한국외대부속외고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들은 지난해까지 보통 10만~20만원의 비용을 내고 2~4개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했다. 모든 학년이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전체 1050명 학생 대부분이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할 정도로 호응이 큰 편이다. 이번 새학기에 학교가 마련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통합논술, 언어·외국어·수리영역 등 수능대비 강좌, iBT 토플, SAT, AP 강좌 등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한 강의와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회화 등 원어민 외국어회화 등 총 64개 강좌다. 또 스포츠댄스를 비롯한 7개 스포츠 강좌와 18개의 악기 강좌도 있다. 학생들은 이 중 원하는 강좌를 모두 신청해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외국인 교사를 포함한 80여명의 교사 대부분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외대부속외고 남봉철 교장은 "이번 '방과 후 수업' 전액 무상 지원은 학생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학교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라며 "강좌를 개설하기 전에 학생들의 수요를 먼저 조사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주 기자 carol@chosun.com

맛있는 교육정보

한미교육연맹, 美 교환학생 모집

미국 비영리 단체 한미교육연맹(KoAm Education Alliance) 한국 지부가 8월에 출발하는 1년 일정의 조기 미국 교환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상이며 신청한 학생들은 8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11개월 동안 중부지역의 미국 사립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호스트 가정에서 생활하게 되며 비용은 2500만원(용돈, 생활비 제외)이다. 홈페이지 www.koamedu.co.kr 문의 (02)3460-2425~6

특목고·청심국제중 입시 설명회

초중 영재교육·특목고 입시전문 (주)하늘교육이 주최하는 "특목고·청심국제중 입시설명회"가 4월 1일 오후 2시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다. 서울·경기 외고 영어듣기 및 구술면접 출제경향과 2008학년도 특목고 전형방법 변경에 따른 대비전략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청심국제중학교 선발시험 출제경향 및 유아·초등과정에서의 대비 방법에 대한 설명도 진행된다. 참석자는 인터넷으로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하며, 예약자에 한하여 자료집이 제공된다. 홈페이지 www.mteacher.co.kr 문의 (02)761-3200

